

원저

實測을 통한 迎香과 巨膠의 穴位에 대한 考察

배기태* · 김동민* · 김희권* · 구성태** · 이의주*** · 손인철**** ·
강성길***** · 김용석*****

*강남경희한방병원 침구과

**한국한의학연구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Location of LI20(*Yonghyang*) and ST3(*Koryo*) Through by Facial Measurement

Bae Ki-tae*, Kim Dong-min*, Kim Hye-e-kwon*, Koo Sung-tae**, Lee Eui-ju***,
Son In-chul****, Kang Sung-keel***** and Kim Yong-suk*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Kangnam Kyung-Hee Korean Hospital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ocation of LI20 and ST3 by facial measurement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Sex and Age.

Methods : To collect the photograph of face, we used the face measurement apparatus, and then analysed whether ST3 was located out of the nasolabial sulcus or not.

Results : ST3 was located at the lateral to the nasolabial sulcus in 94.9%; 92.1% of Soyangin, 97.7% of Taeumin, 94.4% of Soeumin 92.3% of male, and 92.3% of femal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nd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B05-0010-05N1-00020B)

· 접수 : 2006년 10월 23일 · 수정 : 2006년 11월 17일 · 채택 : 2006년 11월 17일

· 교신저자 : 김용석,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4-5번지 강남경희한방병원 뇌신경센터

Tel. 02-3457-9013 E-mail : ackys@hanmail.net

sex. According to age distribution, the highest percentage(100%) was appeared at 16~20 age, and the lowest(91.8%) was appeared at 70~74 age.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at actual measurement would be necessary with classical literature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acupuncture point, and we need more study in other race.

Key words : LI20, ST3, location, actual face measurement

I. 서론

WHO/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에 서는 국제 표준 경혈위치 제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제1차 마닐라 회의(2003년 10월)와 제 2차 북경 회의(2004년 3월) 그리고 제 3차 교토회의(2004년 10월)에 이어 한국, 중국, 일본의 침구경혈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4차 WHO 국제 표준 경혈위치 개발을 위한 회의가 2005년 4월 23일에서 26일까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1차 및 2차 회의에서는 고전문헌의 검토와 임상 을 통합하는 취혈법의 제정, 각국의 교육, 연구, 임상현실의 고려, 體表標識法, 骨度分寸法, 指寸法의 상호 결합사용 등을 주요원칙으로 결정하였으며^{1,2)},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92개의 經穴에 대한 토의를 하여 합일점을 찾기 시작하였고³⁾, 4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표현에 있어서 논란이 되거나 다시 이의가 제시된 經穴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⁴⁾.

논란이 있었던 경혈의 위치 중에 顔面部에 위치한 迎香(LI20)과 巨膠(ST3)가 있었다. 영향은 한국의 침구학 교과서⁵⁾와 일본의 침구서적⁶⁾ 또는 《鍼灸甲乙經》⁶⁾, 《外臺秘要》⁷⁾등의 고전문헌 등에서는 鼻下孔傍의 외측의 鼻唇溝中에 위치한다고 하였고, 巨膠는 鼻孔에 수평선과 瞳子로부터 수직선과 교차 하는 곳이며, 鼻孔傍 8分에 위치한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迎香이 鼻下孔傍의 외측의 鼻唇溝中에 위치할 경우 巨膠와 겹치거나 오히려 迎香이 巨膠보다 안면의 중심부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중국에서는 鼻翼外緣의 中點의 外側에서 영향을 취혈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迎香과 巨膠의 穴位를 파악하고자 안면형상수집기기를 통해 顔面을 實測한 결과, 유의

한 결론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론

1. 迎香과 巨膠의 위치에 대한 문헌적 견해

1) 迎香

- ① 《鍼灸甲乙經 卷3》⁶⁾ “迎香. 一名衝陽. 在禾膠上. 鼻下孔傍. 手足陽明之會. 刺入三分”
- ② 《千金要方 卷29》⁹⁾ “迎香. 在禾膠上一寸. 鼻孔傍”
- ③ 《外臺秘要 卷39》⁷⁾ “迎香. 一名衝陽. 在禾膠上. 鼻下孔傍. 手足陽明之會”
- ④ 《鍼灸大成校釋》¹⁰⁾ “迎香 禾膠上一寸, 鼻下孔傍五分”
- ⑤ 《類經》¹¹⁾ “迎香, 在禾膠上一寸 鼻孔旁五分”
- ⑥ 《經絡穴位與鍼灸概要》¹²⁾ “迎香, 在鼻外緣中點旁 當鼻唇溝中取之”
- ⑦ 《鍼灸經穴辭典》¹³⁾ “迎香, [出典]《甲乙經》在禾膠上. 鼻下孔傍, [位置] 鼻翼外緣의 中央에 있고 鼻唇溝上의 傍에 있음”
- ⑧ 《鍼灸學》⁵⁾ “迎香은 禾膠上 1寸, 鼻孔傍 5分이며 取穴을 鼻翼根部 直外傍 5分部 鼻唇溝中에 취한다”
- ⑨ 《標準經穴學》¹⁵⁾ “迎香, 鼻下點の高さと, 鼻翼外端を通る垂線との交点” 비하점의 높이와 비익외단을 통과하는 수선과의 교점
- ⑩ 《經穴マップ》⁸⁾ “迎香, 鼻孔の外5分, 鼻唇溝中に取る”

2) 巨膠

- ① 《鍼灸甲乙經 卷3》⁶⁾ “巨膠. 在俠鼻孔傍八分. 直瞳子. 驕脈. 足陽明之會. 刺入三分”
- ② 《千金要方 卷29》⁹⁾ “巨膠. 俠鼻傍八分. 直瞳子”
- ③ 《外臺秘要 卷39》⁷⁾ “巨膠. 在俠鼻傍八分. 直瞳子. 驕脈足陽明之會”
- ④ 《鍼灸大成校釋》¹⁰⁾ “巨膠 俠鼻孔旁八分, 直瞳子 平水溝”
- ⑤ 《類經》¹¹⁾ “在俠鼻孔傍八分. 直瞳子”
- ⑥ 《鍼灸經穴辭典》¹³⁾ “巨膠, [出典]《甲乙經》在俠鼻孔傍八分. 直瞳子, [位置]뚝바로 앞을 보고 瞳孔의 직하, 鼻翼下緣과 水平되는 위치”,
- ⑦ 《經絡穴位與鍼灸概要》¹²⁾ “巨膠, 在面部 瞳孔直下, 平鼻翼下緣處取之”
- ⑧ 《鍼灸學》⁵⁾ “巨膠는 鼻孔傍8分 直瞳子(平水溝)이며 正面으로 直視時 瞳子直下와 鼻孔傍 높이의 水平線과의 交叉點. 迎香穴 外傍3분에 취혈한다”
- ⑨ 《精解鍼灸學》¹⁴⁾ “巨膠, 瞳子直下線과 人中上에서 수평선으로 교차하는 鼻唇溝에 取之, 迎香穴傍 3分”
- ⑩ 《標準經穴學》¹⁵⁾ “巨膠, 鼻下点の高さと, 瞳孔を通る垂線との交点”
- ⑪ 《經穴マップ》⁸⁾ “巨膠, 瞳孔を通る垂線と鼻翼下緣の高さと交点に取る”

2. 안면실측 방법 및 안면형상수집기기

1) 대상

2004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경희의료원 사상체질검진센터에 방문한 외래환자 중 체질검사실문지 검사를 하고 안면부 사진촬영을 시행한 환자 중에서 무작위로 492명을 추출하여 안면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피검자의 나이는 16~74세 사이였다.

2) 촬영 및 계측기구

- ① 카메라 Body는 Nikon D-100으로 하였다. 초점을 목적인 곳에 정확히 맞춰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찍었다. 예를 들어, 정면에서는 눈의 검은 동자의 외곽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 자동으로 하면 얼굴중앙에 초점을 맞추어지게 되므로 목적인 곳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수동으로 조작하였다.

- ② Lens는 Nikon 50mm로 하고, 대물렌즈에서 피검자의 검은 눈동자윤곽이나 메디안 라인까지의 거리를 182cm으로 하였다. 이 거리에서 초점을 맞춘 후 거리 조절부를 접착 tape로 고정시켰다. 이 후 촬영 시 finder 내에서 정면 사진에서는 검은 눈동자 윤곽선에 초점을 맞추었고, 피검자마다 평상 자세가 다르므로 가급적 그 자세대로 촬영을 하였다. 어깨와 가슴 등에 대해서는 규정된 자세를 요구하지 않고 얼굴만 정위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 ③ 빛이 세면 눈에 부담을 느껴서 눈의 형상이 왜곡되며, 셔터스피드가 1/60초보다 느리면 피사체의 윤곽선이 흐리게 되기 때문에, 셔터스피드는 1/60초로 하고, 조리개는 자동으로 하였다.

3) 조명

피부색의 비교를 위해서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내는 가급적 밝게 한 상태에서 500w 태양광 전구를 조사하였다.

- ① 조명을 한 개 켜 때: 카메라의 왼쪽 뒤에서 피검자의 두정점 높이에서 피검자를 향하게 하였다.
- ② 조명을 두 개 켜 때: 카메라의 좌,우 뒤에서 피검자의 두정점 높이에서 피검자를 향하게 하였다.
- ③ 배경은 흰색 등 가급적 밝게 하였다.

4) 피검자의 자세와 사진 찍는 방법

- ①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게 했다. 사람마다 어깨와 가슴을 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스러운 자세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정좌를 강요하지 않았다. 동양인의 경우, 이안수평선(耳眼水平線)으로 맞추고 2도 숙였다.
- ② 시선은 수평(정면)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③ 안경이나 귀걸이, 목걸이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촬영하였다. 가급적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을 촬영하였다.
- ④ 가급적 정면 측면 후면의 발체선과 목이 모두 노출된 상태로 촬영하였다.

5) 사진 찍는 순서

① 설문지작성 → ② 실측 및 기록 → ③ 고유번호 부여 → ④ 머리띠를 착용하여 이마발제선과 귀를 노출시킴 → ⑤ 기준자에 번호표부착 → ⑦ 피검자는 자세를 취함 → ⑧ 번호표가 부착된 기준자를 턱 밑 1cm 정도에 넣고 정면사진을 촬영.

6) 정면촬영

얼굴 각 부위의 폭경을 측정하기 위해 촬영하였다.

- ① Camera의 렌즈 축을 피검자의 시선 높이에서 정면에 맞추었다. 대물렌즈에서 검은 눈동자까지 거리는 182cm로 하고, 카메라를 세로로 고정시켰다.
- ② 초점을 조절 시에는 검은 눈동자의 윤곽선을 기준으로 하고, 촬영 시에는 finder의 중앙을 동공사이 중앙점에 두었다.
- ③ 눈을 찌푸리지 않는 가급적 밝은 환경에서 조도의 변화가 적어야 눈을 깜박거리지 않으므로 촬영 시에는 기존의 실내조명을 미리 모두 켜놓아 피검자의 명순용상태에서 찍었다. 그리고 피검자가 눈을 감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눈을 감은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재촬영하였다.

3. 결과의 분석

촬영된 안면사진을 photoshop 7.0 for window를 사용하여 눈동자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선을 긋고,鼻孔下傍으로부터 수평선을 그어서 巨膠의 위치를 정하였고,迎香은鼻孔下傍의 外側の 鼻脣溝中에 위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迎香과 巨膠의 위치관계에 따라 A~I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A는 우측의 巨膠의 위치가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면서 좌측의 巨膠 또한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 B는 우측의 영향은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나 좌측의 巨膠는 비순구 내측에 위치하는 경우, C는 우측의 巨膠가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나 좌측의 거로는 비순구와 겹치는 경우, D는 우측의 巨膠가 비순구의 내측에 위치하면서 좌측의 巨膠는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 E는 우측의 巨膠가 비순구의 내측에 위치하면서, 좌측의 巨膠 또한 비순구의 내측에 위치하는 경우, F는 우측의 巨膠가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며, 좌측의 巨膠는 비순구와 겹치는 경우, G는 우측의 巨膠는 비순구와 겹치며, 좌측의 巨膠는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 H는 우측의 巨膠는 비순구와 겹치며 좌측의 거로는 비순구의 내측에 위치

하는 경우, I는 양측 巨膠 모두가 비순구와 겹치는 것으로 표기하였다.

III. 결 과

1. 전체 피검자의 迎香과 巨膠의 穴位에 대한 실제 안면측정

피검자를 체질별, 성별로 나눈 후 迎香과 巨膠의 위치관계에 따라 A~I로 나누어 분석하였다(Table 1). 좌우 양쪽의 巨膠가 모두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 즉 巨膠가 迎香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전체피검자의 94.9%였으며 좌우 모두 어느 한쪽이라도 겹치는 경우(C+F+G+H+I)는 전체 피검자의 4.6%였으며, 양쪽 다 겹치는 경우(I)는 1.2%로 관측되었다. 그리고 巨膠의 위치가 비순구의 내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전체 피검자의 0.2%인 1명이 관찰되었다.

2. 체질에 따른 迎香과 巨膠의 실제 안면측정결과

전체 피검자 모두 체질검사설문지로 사상체질검사를 하였으며, 태양인의 경우는 전체 피검자 중 1명뿐이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피검자 중 태양인의 비율은 0.2% 소양인의 수는 28.4%, 태음인은 34.9% 소음인은 36.4%였다. 좌우 양쪽의 巨膠가 모두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소양인은 92.1% 태음인은 97.7% 소음인은 94.4%이며, 좌우 어느 한 쪽에서라도 迎香과 巨膠가 겹치는 경우는 전체 소양인 중에서 7.1% 태음인은 2.3% 그리고 소음인은 5.6%로 나타났다.

3. 성별에 따른 迎香과 巨膠의 실제 안면측정결과

전체 피검자 중 남자는 233명으로 전체의 47%, 여자는 259명으로 전체의 53%였다. 좌우 양쪽의 巨膠가 모두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남자는 92.3% 여자는 97.6%이며, 좌우 어느 한 쪽에서라도 迎香과 巨膠가 겹치는 경우는 남자의 7.7% 여자의 2.3%로 나타났다.

Table 1. Location of LI20 and ST3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nd Sex

Sasang Constitution	Sex	Location									Total
		A	B	C	D	E	F	G	H	I	
Taeyangin	Male	1 (0.2%)									1 (0.2%)
	Female										0
Soyangin	Male	60 (12.1%)		2(0.4%)				3(0.6%)		2(0.4%)	67 (13.6%)
	Female	69 (14.0%)			1(0.2%)			1(0.2%)		2(0.4%)	73 (14.8%)
Taeumin	Male	68 (13.8%)						2(0.4%)			70 (14.2%)
	Female	100 (20.3%)						2(0.4%)			102 (20.7%)
Soeumin	Male	86 (17.5%)						7(1.4%)		2(0.4%)	95 (19.3%)
	Female	83 (16.9%)		1(0.2%)							84 (17.1%)
Total		467 (94.9%)	0	2(0.4%)	2(0.4%)	0	0	15(3.0%)	0	6(1.2%)	492

- A: Right ST3 is located at later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and Left ST3 is located at later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 B: Right ST3 is located at later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and Left ST3 is located at medi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 C: Right ST3 is located at later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and Left ST3 overlaps with the nasolabial sulcus.
- D: Right ST3 is located at medi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and Left ST3 is located at later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 E: Right ST3 is located at medi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and Left ST3 is located at medi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 F: Right ST3 is located at later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and Left ST3 overlaps with the nasolabial sulcus.
- G: Right ST3 overlaps with the nasolabial sulcus and Left ST3 is located at later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 H: Right ST3 overlaps with the nasolabial sulcus and Left ST3 is medial from the nasolabial sulcus.
- I: Right ST3 overlaps with the nasolabial sulcus and Left ST3 overlaps with the nasolabial sulcus.

Table 2. Location of LI20 and ST3 with Sasang Constitution

체질	ST3 is Located at Later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Right and/or Left ST3 Overlaps with the Nasolabial Sulcus
Soyangin	129(92.1%)	10(7.1%)
Taeumin	168(97.7%)	4(2.3%)
Soeumin	169(94.4%)	10(5.6%)

Table 3. Location of LI20 and ST3 with Sex

Sex	ST3 is Located at Later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Right and/or Left ST3 Overlaps with the Nasolabial Sulcus
Male	215(92.3%)	18(7.7%)
Female	252(97.3%)	6(2.3%)

Table 4. Location of LI20 and ST3 with Age

Age	ST3 is Located at Lateral Side from the Nasolabial sulcus	Right and/or Left ST3 Overlaps with the Nasolabial Sulcus
16-19	26(100%)	0(0%)
20-29	121(96.8%)	4(3.2%)
30-39	137(97.9%)	3(2.1%)
40-49	87(95.6%)	4(4.4%)
50-59	56(88.9%)	7(11.1%)
60-69	31(86.1%)	5(13.9%)
70-74	9(81.8%)	1(9.1%)

4. 연령에 따른迎香과巨膠의 실제안면측정

좌우 양쪽의巨膠가 모두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10대가 100%로 가장 높으며, 70대(70~74세)가 81.8%로 가장 낮으며,巨膠가 비순구 내측에 위치하는 경우도 1례 관찰되었다.

IV. 고찰

迎香의 穴位는 《鍼灸甲乙經 卷3》⁶⁾에서 “迎香. 一名衝陽. 在禾膠上. 鼻下孔傍. 手足陽明之會. 刺入三分”이라 하였으며 《類經》¹¹⁾에서는 “在禾膠上一寸 鼻孔旁五分”라고 하여, 鼻孔傍, 鼻下孔傍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巨膠의 경우 《鍼灸甲乙經 卷3》⁶⁾에서는 “巨膠. 在俠鼻孔傍八分. 直瞳子. 驕脈. 足陽明之會. 刺入三分”라 하였고, 《千金要方 卷29》⁹⁾에서는 “巨膠. 俠鼻傍八分. 直瞳子”라고 하였으며, 《類經》¹¹⁾에서는 “在俠鼻孔傍八分. 直瞳子”라고 하며, 鼻孔의 수평선과 눈동자의 수직선이 만나는 곳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제4차 WHO 국제 표준 경혈위치 개발을 위한 회의에서 한, 중, 일 각국의 경혈위치의 논의 중에서 안면부 경혈 위치의 논란이 있었다. 중국측은迎香의 경우 鼻翼外緣 中央 외측의 鼻唇溝에 취혈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측의 주장, 그리고 고전문헌에 의거한迎香의 穴位, 즉 “鼻下孔傍의 외측에 있으며 鼻唇溝中에 위치”로 정할

경우에는 鼻孔의 수평선과 瞳子로부터 수직선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巨膠와 겹치거나 오히려迎香이 巨膠보다 안면의 중심부에 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巨膠와迎香의 올바른 위치를 정하기 위해 한국인의 안면 실측을 통해 경혈위치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2004년 2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경희의료원 사상체질검진센터에서 체질검사설문지로 사상체질 검사를 하고 안면부 사진촬영을 시행한 환자 중 무작위로 492명을 추출하여 안면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나이는 16~74세 사이로 하였다. 모두 492명의 피검자의 안면을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촬영 후, 좌측과 우측의 巨膠와迎香의 위치를 분석하였다.

좌우 양쪽의 巨膠가 모두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 즉 巨膠가迎香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전체피검자의 94.9%, 좌우 모두 어느 한 쪽이라도 겹치는 경우는 4.6%, 양쪽 다 겹치는 경우는 1.2%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巨膠의 위치가 비순구의 내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전체 피검자의 0.2%인 1명이 관찰되었다. 좌우 양쪽의 巨膠가 모두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소양인은 92.1%, 태음인은 97.7%, 소음인은 94.4%이며, 좌우 어느 한 쪽에서라도迎香과 巨膠가 겹치는 경우는 전체 소양인 중에서 7.1%, 태음인은 2.3%, 그리고 소음인은 5.6%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좌우 양쪽의 巨膠가 모두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남자의 경우 92.3%, 여자의 경우 97.6%이며, 좌우 어느 한쪽에서라도迎香과 巨膠가 겹치는 경우는 남자의 7.7%, 여자의 2.3%로 나타났다. 좌우 양쪽의 巨膠가 모두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10대가 100%로 가장 높으며, 70대(70~74세)가 81.8%로 가장 낮으며,

巨膠가 비순구 내측에 위치하는 경우도 1례 관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대가 지날수록 한국인들의 안면 및 전체적인 신체의 골격형태가 변하였고, 또한 노화가 진행될수록 골격과 피부 등에 변화가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경혈의 위치를 정함에 있어 기존의 고전문헌에 기재된 방법 외에도 안면 실측을 통한 경혈위치의 분석이 필요하며, 표준적인 안면 경혈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다른 인종 및 구미의 여러 인종에 대한 추가적인 다양한 안면실측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迎香과 巨膠의 穴位를 파악하고자 2004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경희의료원 사상체질검진센터에 방문한 외래환자 중 무작위로 492명을 추출하여 안면형상수집기기를 통해 顔面을 實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안면 실측 결과 좌우 양쪽의 巨膠가 모두 鼻脣溝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전체 피검자의 94.9%에서 나타났고, 좌우 모두 어느 한쪽이라도 겹치는 경우는 전체 피검자의 4.6%로 나타났다, 양쪽 다 겹치는 경우는 1.2%로 관측되었다. 巨膠의 위치가 비순구의 내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전체 피검자중 0.2%인 1명 뿐이었다.
2. 사상체질별로 살펴본 결과 좌우 양쪽의 巨膠가 모두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소양인은 92.1%, 태음인은 97.7%, 소음인은 94.4%였으며, 좌우 어느 한쪽에서라도 迎香과 巨膠가 겹치는 경우는 전체 소양인 중에서 7.1%, 태음인은 2.3%, 그리고 소음인은 5.6%로 나타났다.
3. 성별로 살펴본 결과 좌우 양쪽의 巨膠가 모두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남자의 92.3%, 여자의 97.6%였으며, 좌우 어느 한쪽에서라도 迎香과 巨膠가 겹치는 경우는 남자에게서는 7.7%, 여자에게서는 2.3%가 나타났다.
4.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좌우 양쪽의 巨膠가 모

두 비순구의 외측에 위치하는 경우는 10대는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대(70-74세)에서는 81.8%로 가장 낮았다.

VI. 參考文獻

1. 김용석, 강성길, 박희준, 이해정. 제2차 WHO 경혈위치 국제표준화 회의 보고.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4 ; 21(2) : 193-195.
2. 形井 秀一. 第2回 經穴部位國際標準化に關する非公式諮問會議の報告. 全日本針灸學會雜誌. 2004 ; 54(2) : 191-193.
3. 임윤경, 강성길, 김용석, 손인철. 제3차 WHO 경혈위치 국제표준화 회의 보고.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5 ; 22(1) : 1-54.
4. 임윤경, 김용석, 구성태, 손인철, 박희준, 이해정, 이지영, 강성길. 제4차 WHO 경혈위치 국제표준화 회의 보고.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5 ; 22(2) : 1-8
5. 전국한의학대학 침구경혈학교실. 鍼灸學. 서울 : 집문당 2000 : 339, 340, 351.
6. 皇甫謐. 鍼灸名著集成中 鍼灸甲乙經. 北京:華夏出版社. 1997 : 39.
7. 王壽. 外臺秘要.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6 : 1098.
8. 森和. 經穴マップ. tokyo : 醫齒藥出版株式會社. 2004 : 33, 36.
9. 孫思邈. 千金要方. 北京:華夏出版社.1994 : 404.
10.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 校釋. 鍼灸大成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 742, 751.
11. 張介賓. 類經. 서울:대성문화사. 1988 : 118, 119.
12. 靳士英, 金完成 編著. 經絡穴位與鍼灸概要.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6 :68, 69.
13. 山西醫學院李丁. 鍼灸經穴辭典 고려의학. 1989 : 107, 115.
14. 崔容泰, 李秀鎬 精解鍼灸學 행림출판 1985 : 241, 255.
15. 日本經穴委員會, 標準經穴學. 東京 : 醫齒藥出版株式會社. 1995 : 19.